

## 「哲學」概念的 變遷

### 哲學의 普遍的 定義의 難點(4)

金午星

그러면 哲學은 그 對象에 있어서나 그 方法에 있어서 다른 學文과 嚴格하게 區別되는 어떤 劃一的인 特徵을 歷史적으로 보여 주었는가? 普遍性이란 것이 果然哲學을 다른 學問과 區分시키는 基準이 되었는가?

우리는 먼저 哲學의 特性을 그 對象의 側面에서 차저 보기로 하자. 存在(Sein)를 그 存在의 像相에서 把握하려는 哲學(아리스토텔레스)이 있는 反面에는 要請(Sollen)에 依하여 對象을 構成하며 產出하려는 哲學(칸트)派이 있다. 한 哲學이 存在와 思惟의 終局 關係를 論究하고 있는가하면 달은 한 哲學은 特殊科學의 基礎를 論空하는 것으로서 自己를 制限한다. 前者가 普遍的이라면 後者は 嚴密한 意味의 普遍的인 것이 되지 못할 것이 아닌가? 또한 論理學에다 自己를 制限하는 哲學이 있으면 그 反對로 認識論이나 論理學에만 執着하는 哲學도 있다. 心理學을 基礎로 하는 哲學이 있는가하면 自己를 心理學에 解體하려는 哲學도 있다. 古代 希臘에 있서는 嚴格한 意味에서 天文學이나 數學 物理學의 領域에 屬할 性質의 것을 哲學이란 名稱 밑에서 追求하였으나 近代의 哲學은 그러한 것을 自然哲學이라 하여 哲學 體系의 한 領域으로만 認定한다. 또한 近代 哲學에 있서도 어떤 哲學은 獨特한 自然觀을 基礎로 하고 있스나 어떤 哲學은 自然觀을 斷念하고 있다. 中世紀의 哲學은 그 對象을 神學에서 求하였다. 近代 哲學은 어떤 哲學 體系가 有神論을 基礎로 하고 있스면 달은 어떤 哲學 體系는 無神論을 基礎로 하고 있는 것이다. 칸트에 일으키까지는 哲學을 本體論, 神觀, 自然觀 등을 論究하였을 뿐 歷史的, 社會的인 것은 問題삼지 안했다. 그러나 그 뒤의 現代 哲學은 本體, 神, 自然 가튼 것 보담 오히려 歷史的, 社會的인 것을 對象으로하며 그것을 論究하는데 全情熱을 集中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歷史的 事實되는 特性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特殊科學이 各自 確實한 對象을 갖고 잇슴과 가티 一義的인 對象을 보여줄 수는 업는 것이다. 哲學이 普遍性을 原理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직 形式에 拘될 뿐이요, 그 內容과 그 範圍는 各時代

와 各哲學 體系에 따라서 相異한 것이다. 그러므로 哲學에 있어서 普遍的 定義를 비저 내려든 史家들의 努力은 한갓 徒勞에 不過한 것이었다.

哲學의 一義的 概念을 그 對象에서 찾지못한 그들은 그것을 다시 方法에서 차즈려 했다. 哲學은 科學과 同一한 對象을 가지는 것이나 그 同一한 對象을 哲學은 科學과는 전혀 相異한 方法으로서 取扱하는 것으로 自己의 方法에 適應되는 것만을 對象으로서 要求하지 안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歷史 上의 온갖 哲學 體系에 適用될만한 普遍性있는 方法을 抽出하며 또 맨드려 내려 하였다. 汎論理主義에 立脚한 헤-겔의 哲學史가 그러한 努力의 代表者일 것이다. 헤-겔은 全哲學史 上의 온갖 哲學 體系를 自己의 觀念辨證法에 依하여 解釋하였다. 즉 모든 歷史 上의 哲學 體系는 自己의 哲學 體系에 이르러 비로소 한 개의 完結을 보혀 줄 온갖 契機에 지내지 안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리하여 自己의 方法에 드러맞지 안할 때 헤-겔은 自己의 方法이 잘못된 것을 省察하지 안코 現實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斷定하기까지 徹底한 論理主義를 信賴하였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方法主義도 한 개의 抽象的 計畫으로서는 成功했슬는지 모르나 哲學의 普遍的 特性은 찾는데 잇서는 한갓 徒勞이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哲學的 方法이 무엇인가?를 哲學史 上에 向하여 무를 때 各個의 哲學이 各個의 方法을 가지고 잇슬 뿐 아니라 어떤 哲學은 方法을 拒否하며 또 哲學을 學問的 狹窄 以上으로 생각하여 哲學을 思索的 方法에 依하지 안코 直觀的으로 營爲하려는 사람도 잇는 까닭이다. 보라! 存在를 存在 自體의 樣相에서 把握하려는 存在學籍 方法이 잇스면 認識主觀의 省察에 依하여 存在를 構成하려는 批判的 方法이 잇스며 한편에 形式論理를 武器로 하는 哲學이 잇스면 달은 한편에는 辯證法을 武器로 하는 哲學이 잇스며 한편에 神祕的 方法으로 自己의 體系를 形成한 哲學이 잇는가하면 달은 때에는 數學이나 自然科學的 方法을 哲學에 強要한 體系가 잇지 안흔가! 이러한 各樣各色的 哲學的 方法 가운데서 어떠한 모든 哲學 逮繫에 適用될 方法을 抽出할 수 잇슬가? 그러한 方法을 맨드려 냐다고 自信을 갖는 사람이 잇다 하드라도 그것은 哲學史의 立場에서 보면 그도 만흔 哲學的 方法 가운데의 한자리를 차지한 自己 體系의 方法에 지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現代의 實存哲學 등은 過去의 論理主義에 비치워 보면 차라리 非論理的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方法에 依하여서도 哲學의 普遍的 特性을 차출 수는 업는 것이다.